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사진
원오원팩토리

〈더 빌리지〉
여름캠프 참여안내
The Village / Summer Camp

2016.8.6 (토) — 2016.8.28 (일)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나·서울·너
SEOUL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후원 몬드리안 재단



□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은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NERIRI KIRURU HARARA)라는 제목으로 2016년 9월 1일(목)부터 11월 20일(일)까지 총 81일동안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과 세 곳의 분관에서 열립니다. 백지숙 예술감독이 기획하는 <미디어시티서울> 2016은 전쟁, 재난, 빈곤 등 원치 않는 유산을 어떻게 미래를 위한 기대감으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맥락 안에서 변화를 배양하고 급진적 단절의 내러티브를 구사하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주목합니다.

□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초청으로 함양아 작가가 기획한 <더 빌리지>(The Village)는 국내외 시각예술교육가와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임시공동체 학습마을'입니다. <더 빌리지>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모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통해 삶과 사회의 나은 모습을 도모하는 창의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여름캠프 이후, 비엔날레 기간에는 <더 빌리지>의 전시와 함께 여름캠프에 참여한 시각예술교육가와 예술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학습에 기초하여 기획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출판물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6일(토)부터 8월 28일(일)까지 남서울생활미술관을 상호배움과 생활의 경험이 녹아드는 환경으로 변모시킬 이 캠프에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작가 함양아

함양아 작가는 네덜란드와 터키,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 비평의 일환으로 예술을 실천해왔으며, 개인의 삶과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연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모집 개요

1. 제목 : <더 빌리지>(The Village) 여름캠프
2. 모집인원 : 매주 20명 내외
3. 모집대상 : 시각예술분야 교육자
 - ① 시각예술단체/기관 에듀케이터
 - ② 초/중/고/대안/특수학교 미술교사
 - ③ 시각예술분야 예술강사
 - ④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예술가
4. 참가기간 : 8월 6일(토) - 8월 28일(일) (월요일 휴관)
 - ① 총 35과정 (과정별 2시간~4시간)
 - ② 오전 10시 - 오후 8시 (주간별 시간표 변동 가능)

- 여름캠프 1 주: 8 월 9 일(화) - 8 월 23 일(금)
- 여름캠프 2 주: 8 월 16 일(화) - 8 월 20 일(토)
- 여름캠프 3 주: 8 월 25 일(목) - 8 월 28 일(일)

-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7 월 4 일(월) <미디어시티서울> 2016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 * 8 월 6 일(토)부터 주말에는 다양한 공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여름캠프 모든 과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5.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 참가신청

1. 신청기간 : 7 월 4 일(월) 오전 9 시 ~ 7 월 14 일(목) 오후 6 시
* 신청인원이 정원의 2 배수 이상일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 참가신청서는 7 월 4 일(월) <미디어시티서울> 2016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 주 전 과정 참가 가능합니다.
3. 참가자 발표 : 7 월 18 일(월) 오후 1 시, SMS 및 이메일 개별통보
4. 참가등록비 : 1 주 11 만원, 2 주 22 만원, 3 주 33 만원 (전 과정)
* 등록비는 전액 참가자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5. 등록비 납부기간 : 7 월 21 일(목) 오후 5 시까지

□ 참가자 선정기준

- 시각예술분야 교육자
- 참가 신청 이유와 작성 내용의 적합성
- 3 주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

□ 참가신청시 유의사항

- 주 단위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 3 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영어수업은 영어-한국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대리신청 또는 대리참석은 불가능합니다.
- 정해진 환급기간 이외에 참가등록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더 빌리지> 여름캠프 배움의 과정

작품의 진정한 주인은? - 경쟁에 대하여

마리안느 플로트론 (Marianne Flotron)

* 총 4 과정

워크숍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구조들이 예술 작품의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미술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술가의 자기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경쟁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토론과 인간행동학에 기반한 퍼포먼스 활동들을 통해 경험해본다.

창의성의 도시와 예술: 예술, 정치, 도시의 삶

파스칼 길렌 (Pascal Gielen)

* 총 5 과정

예술, 정치, 정책, 그리고 공공 공간 간의 관계를 글로벌한 '창의성의 도시'라는 개념 안에서 분석을 하고, '창의적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이 정책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본다.

교사를 위한 영화 학교

황젠홍 (Chien-Hung Huang)

* 총 4 과정

대만 후봉 에듀케이션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예술교사를 위한 영화 학교를 운영한다.

조정

사샤 카랄릭 (Sasa Karalic)

* 총 4 과정

한국 사회와 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심리학적, 언어학적,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보에 담긴 진의와 의도, 기능을 파악하여 원래의 형태로 돌리는 '조정' 활동을 진행한다. 정보의 화제성, 기능성, 신뢰성, 그리고 사실, 믿음, 참여 간의 긴장감이 중점이 된다.

자명, 공명, 그리고 공감

권병준 (Byung Jun Kwon)

* 총 3 과정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고, 악기로 발전시켜본다. 일상의 사물에서 공명에 의한 소리의 확장을 경험하고, 전통 악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연주 방식을 체득하여 자신의 소리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경험한다.

예술과 관료제, 그리고 공공적 삶

박소현 (So Hyun Park)

* 총 3 과정

현대사회에서 관료제가 예술의 생산/생존은 물론 그 유통 및 소비/향유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 예술에 대한 공공적 지원, 예술교육 및 예술기관의 확대, 예술시장에의 공공적 개입 등은 예술실천과 우리의 공공적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술사적 사건들과 최근 한국사회의 상황을 교차하며 살펴본다.

몸과 움직임의 모양

노경애 (Kyung Ae Ro)

* 총 2 과정 X2 주

놀이하듯 몸을 움직이면서 독특한 자신만의 움직임의 언어들을 찾아 나아간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글쓰기, 그리기, 배치하기 등을 접목해 춤춘다. 형태·공간·간격·길이·이미지 등의 요소들을 이용해 움직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만남과 소통을 이루어간다.

보는 법의 교육

게이코 세이 (Keiko Sei)

* 총 4 과정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미디어와 정보들은 민주주의의 환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안에서 비평적 사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번 수업은 미디어에 대한 읽기와 비평적 사고를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변화와 예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피로의 학교

헝크 슬래거 (Henk Slager)

* 총 4 과정

현대의 과잉 성취, 과잉 생산, 과잉 커뮤니케이션과 이 '과잉'의 추진력인 무한 긍정주의가 피상적인 교육과 문화에 어떻게 일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대 예술가들의 영상작품을 통해 깊은 사색을 필요로 하는 탐구의 모델과 교육의 방식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본다.

* 위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빌리지> '함께하는 점심'

정성과 시간을 들여 키워진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점심식사를 함께 합니다. 일회용 식기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 강사 소개

마리안느 플로트론 (Marianne Flotron)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인간 행동과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주체가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주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고찰해왔다.

파스칼 길렌 (Pascal Gielen)

글로닝언 대학에서 가르쳤고, 현재 앤트워프 대학의 예술사회학 및 문화정치학 교수이다. 예술의 세계적 맥락, 창의적인 노동 그리고 문화정치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회 속 예술 (Arts in Society)'이라는 연속 출판물을 저술해왔다.

황젠홍 (Chien-Hung Huang)

타이베이 국립 예술대학 융합예술대학원 부교수이다. 영화와 현대예술에 대한 비평활동을 하며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샤샤 카랄릭 (Sasa Karalic)

암스테르담 게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예술의 맥락-예술과 이론의 융합'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다. 사회적 관계의 언어를 통해 정립되는 방법과 이 방법들이 어떻게 시각적 요소와 기호들과 융합되는지 관심이 있다.

권병준 (ByungJun Kwon)

보컬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음악적 장치를 이용한 공연을 선보여왔다. 네덜란드의 실험적인 전자악기 연구개발기관 STEIM 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였고, 현재 음악가, 하드웨어 연구자, 뉴미디어 퍼포먼스 기획 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소현 (Sohyun Park)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이다. 예술제도와 예술실천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정치에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정책, 박물관/미술관학, 근현대미술사 등의 영역을 넘나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노경애 (Kyung Ae Ro)

2005년 벨기에에서 vzwCABRA 를 설립하였다. 신체 움직임을 기본으로 사운드, 영상,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시도하며, 새로운 움직임 언어와 공연형식을 탐구하고 있으며, 교육사업과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을 기획해오고 있다.

게이코 세이 (Keiko Sei)

저술가이자 큐레이터로 도큐멘타 12 매거진 에디터로 활동했다. 미디어 아트, 독립미디어, 미디어 액티비즘 등에 대한 비평적 강의를 해왔으며, 현재 방콕과 양곤을 오가며 필름과 비디오,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헝크 슬래거 (Henk Slager)

위트레흐트 대학원의 시각예술과 디자인(MaHKU)의 학장이며, 예술적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해왔다. 2006년부터 예술 교육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유럽 예술 연구 네트워크 (European Artistic Research Network, EARN)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남서울생활미술관

1905년 준공된 대한제국(1897 ~ 1910) 주재 벨기에 영사관 건물로서, 1983년에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회현동에서 남현동으로 이전 복원되었습니다. 2004년 5월 우리은행이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에 무상임대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미술관으로 조성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남현동)

□ 문의

- 이메일 : register@mediacityseoul.kr
- 전화 : (02) 2124-8977
- 담당자 : 허미석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코디네이터)
이성민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후원

몬드리안 재단

□ 주최

서울시립미술관